

고객 마음 사로잡는 스냅스 ‘스마트포토’ 포토북에서 사진인화, 포토캘린더 · 다이어리까지

온라인 포토북 서비스업체 스냅스(대표 김성경, www.snaps.kr)의 포토북뿐만 아니라 사진인화, 포토캘린더, 포토다이어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토탈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자료 제공 | 스냅스



스냅스는 디지털 인쇄 시장과 온라인 사진 인화가 활성화되기 전인 2006년부터 포토북 서비스를 시작한 포토 서비스 1세대 업체다. 포토북은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성장 사진을 찍는 주부들까지 스냅스 편집프로그램 ‘스마트포토’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아 책을 제작해 주고 특히 사진편집에서부터 제작에 이르는 출판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량 다 품종 인쇄에 적합하다. 또한 모든 상품을 하루에 제작할 수 있어 고객들은 보다 빠르게 스냅스 포토북을 만나볼 수 있다.

업계 최초 ‘포토북 품질보증제도’ 도입

스냅스는 업계 최초로 2009년부터 ‘포토북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보증제도는 고객이 포토북 주문 후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다시 제작하거나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고품질의 포토북을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원자재와 최고급 품질을 보증하는 ‘스냅스 퀄리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그동안 무광커버와 무광내지를 기본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커버내지 옵션을 선명한 느낌의 유광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있는 무광커버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

지 역시 아날로그 감성이 그대로 담긴 무광용지, 매끄러움과 선명한 색상을 표현한 유광용지, 그리고 반짝반짝 펄 코팅으로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전문용지(프리미엄지)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포토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만큼 커지는 고객사랑

포토북을 제작하는 이유와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아이의 첫걸음부터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 성장앨범, 학교친구들과 회사동료들과 1년을 마무리하고 추억하기 위한 ‘Yearbook’, 자신이 촬영한 사진의 작품집, 오래된 사진을 이용해 만든 선물용 포토북에 이르기까지 스냅스 포토북을 이용해 담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또한 스냅스는 토탈 포토 서비스기 업답게 포토북뿐만 아니라 사진인화, 포토달력, 포토다이어리, 카드, 포토앨범, 액자 등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동화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맞춤동화 상품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포토샵작업없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잔치 필수아이템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스냅스의 사랑해책 시리즈는 (주)푸른책들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유아부문 베스트셀러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모두 모두 사랑해’ 작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